



미 증시, 연준 위원 발언, 기업실적 우려에 하락 마감

미국 증시 리뷰

8 일(수) 미국 증시는 뉴욕 연은 총재의 매파적 발언, 구글의 AI 챗봇 GPT 기대감 후퇴, 기업 실적 우려 등으로 하락 마감 (다우 -0.61%, S&P500 -1.11%, 나스닥 -1.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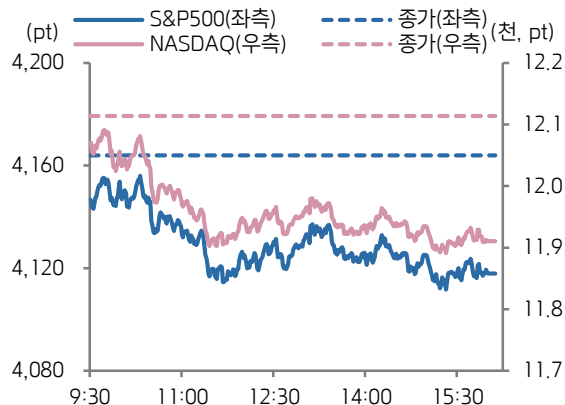
뉴욕 연은 총재는 고금리 기조를 향후 몇 년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긴축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 인플레이션이 2%로 확실해진 이후에 금리를 정상적인 수준으로 되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는 동시에, 연말 기준금리를 5%~5.25%에 이를 것으로 예상. 25bp 인상폭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평가하며 향후 금리 인상폭 역시 25bp 수준에 그칠 것임을 시사.

크리스토퍼 윌러 연준 이사 역시 경제지표 상으로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증거가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높은 금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언급. 파월의장이 상품 가격 측면에서 디스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한 것과는 상반되는 발언으로 시장의 위험선호 심리는 후퇴.

미국 중간 원유재고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요 기대감과 터키 지진으로 인한 원유수송 차질 우려로 유가는 상승. 집계측 역시 원유 수출 감소 및 수입 증가로 재고가 증가했지만 "정유 설비 가동률이 상승한 것은 정유업체들이 소비자들의 수요 증가를 기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언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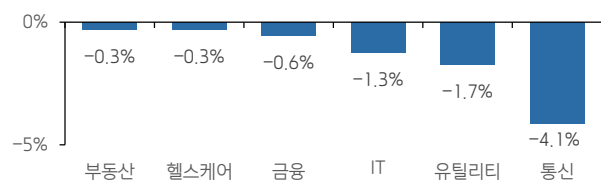
전업종이 하락한 가운데, 부동산(-0.3%), 헬스케어(-0.3%), 금융(-0.6%) 업종의 낙폭이 가장 작았고 통신(-4.1%), 유틸리티(-1.7%), IT(-1.3%)업종의 낙폭이 가장 컸음. 알파벳(-7.68%)는 구글의 AI 챗봇 바드가 AI 행사에서 부정확한 답변을 내놓은 영향으로 정확도에 대한 우려 확산되며 급락. 한편 마이크로소프트(-0.31%)는 AI 챗봇을 탑재한 새로운 버전의 '빙(Bing)'을 공개하며 개장 전 4%대 급등을 보였으나 상승폭 축소하며 약보합 마감. 전일 바이두에 이어 알리바바(-0.37%) 역시 챗 GPT의 경쟁 대상이 될 자체 기술을 내부적으로 테스트중이라고 발표하며 AI 업계 경쟁 심화를 시사. 우버(5.53%)는 4 분기에 예약금 증가와 마진 확대로 주당 순익 29 센트를 기록했다고 발표, 주당 손실을 예상한 시장 기대를 크게 상회하며 급등. 한편 언더아머(-8.18%)는 견조한 실적을 발표했으나 재고가 증가했다고 밝힌 영향으로 급락.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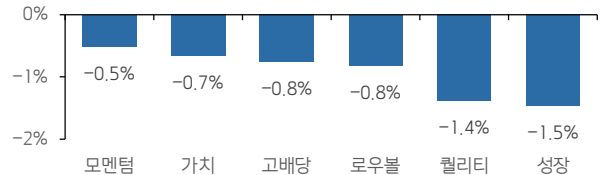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코스피	2,483.64	+1.3%	USD/KRW	1,260.19	+0.35%
코스피 200	325.63	+1.58%	달러 지수	103.49	+0.06%
코스닥	779.98	+0.93%	EUR/USD	1.07	-0.11%
코스닥 150	1,095.20	+0.91%	USD/CNH	6.79	+0.16%
S&P500	4,117.86	-1.11%	USD/JPY	131.45	+0.29%
NASDAQ	11,910.52	-1.68%	채권시장		
다우	33,949.01	-0.61%	국고채 3년	3.329	+2.9bp
VIX	19.63	+5.2%	국고채 10년	3.305	+2.3bp
러셀 2000	1,942.60	-1.52%	미국 국채 2년	4.425	-3.9bp
필라. 반도체	3,055.63	-2.19%	미국 국채 10년	3.614	-6bp
다우 운송	15,394.43	-0.62%	미국 국채 30년	3.672	-4.1bp
유럽, ETFs			원자재 시장		
Eurostoxx50	4,209.15	+0%	WTI	78.46	+1.71%
MSCI 전세계 지수	654.56	+0.87%	브렌트유	85.12	+1.71%
MSCI DM 지수	2,820.49	+0.96%	금	1888.3	+0.19%
MSCI EM 지수	1,015.51	+0.1%	은	22.33	+0.69%
MSCI 한국 ETF	62.91	+0.25%	구리	404.5	-0.87%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0.25% 상승, MSCI 신흥국 ETF 는 0.12% 하락. 유렉스 야간선물은 0.27%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259.8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보합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누적된 연준의 매파 스탠스 부담이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 2. GPT 시연 문제로 인한 알파벳 주가 급락이 국내 관련주에 미치는 영향 3. 롯데케미칼, SK 바이오팜, 하나금융지주 등 주요기업들의 실적 발표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전일 미국 증시의 급락은 차주 CPI 이벤트를 앞두고 사전 포지션 청산 성격도 있겠지만, 연준과 주식시장과의 연내 금리 경로를 둘러싼 괴리 지속에 대한 부담감이 누적된 영향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

최근 외환시장이나 채권시장에서는 연준의 매파적인 스탠스를 가격에 반영하고 있는 분위기 였으나(달러 강세, 금리 상승), 주식시장에서는 연준의 연내 금리 인하를 통한 유동성 주입 기대감에 힘을 싣고 있던 상황(주가 상승). 하지만 현재는 이 같은 기대감이 일정부분 되돌림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더해 또 다른 특이 현상은 “연준의 최종금리가 얼마나 되건 간에 상관없이, 이들은 연내 금리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 가령, CME FedWatch 기준으로 1 월 고용 지표 발표 이전 연내 최종금리 상단 컨센서스는 5.0%였으며, 연말 금리 상단 컨센서스는 4.75%로 25bp 인하를 채권시장에서는 상정하고 있었음. 그러나 1 월 고용 서프라이즈 이후 최종금리 컨센서스는 5.25%로 이동함과 동시에 연말 금리 컨센서스도 5.0%로 형성된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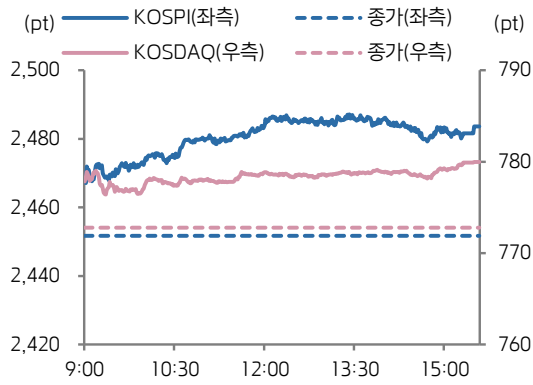
이는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참여자들 간 단기적인 연준 정책 전망은 엇갈리면서도, 중기적인 정책 경로에 대해서는 의견 일치를 보이고 있음을 시사. 즉, 이들이 보기에 긴축의 끝은 상반기이며, 연말에는 대형 돌발 변수가 생기지 않는 이상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데에 베팅을 하고 있는 모습.

전일 “인플레이 안정을 위해 할일이 많다”는 뉴욕 연은 총재,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은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는 월러 연준 이사 등 연준 위원들은 여전히 연내 금리인하는 없다는 식의 메시지를 시장에 던졌음에도 시장의 중기적인 베팅은 변하지 않은 실정. 시장과 연준 모두 저마다 설득력 있는 논리와 데이터를 토대로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만큼, 이들 중 누가 정답을 갖고 있었는지를 확인하기까지는 최소 2~3 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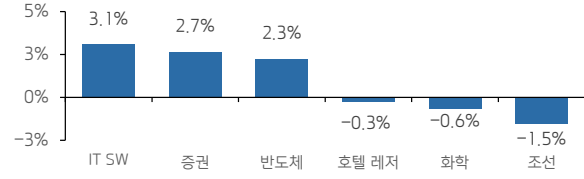
다만, 차주 예정된 1 월 CPI(컨센 6.2%YoY, 전월 6.5%) 이벤트를 치르는 과정에서 어느정도 입장 차이 자체는 좁혀질 것으로 예상. 따라서, 주식시장 참여자들은 현시점에서 방향성 베팅(상방 or 하방)보다는 저베타, 저변동성 혹은 변동성 관리 상품 등을 통해 시장 중립적인 포지션을 구축하고 CPI 이벤트에 대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전일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 강세 및 GPT 및 AI 관련 테마 강세 속 외국인 4,000 억원대 순매수에 힘입어 상승 마감(코스피 +1.3%, 코스닥 +0.9%). 금일에는 연준의 매파적 스탠스 강화에 따른 부담감 누적 속 미국 나스닥 급락 여파가 차익실현 욕구를 자극하면서 약세로 출발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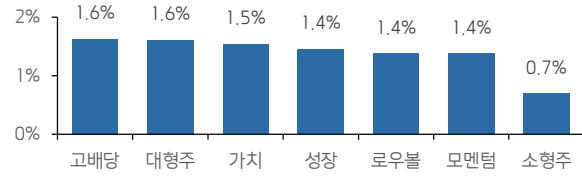
업종 및 테마 관점에서는 전일에도 국내 시장에서 관심이 높았던 GPT 관련주들의 변동성 확대에 대비할 필요. 전일 미국 증시에서 알파벳(-7.7%)이 자체 GPT 인 바드의 시연회에서 잘못된 답변을 제시한 것에 따른 실망감으로 주가가 급락했다는 점은 국내 관련주 투자심리 변화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 또한 금일에도 롯데케미칼, SK 바이오팜, 하나금융지주, KT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잇따라 예정되어 있는 만큼, 개별 실적 이슈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종목 장세가 재차 전개될 것으로 전망.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스타일별 추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Quantiwise, Fnguide,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며,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분석 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